

ISU

2017 AUTUMN VOL. 90

INSIDE

이슈를 잡아라

이수그룹 사회공헌 캠페인 '파란책방'

Show me the 팀웍

이수엑사보드 HDI연구개발팀

OUTSIDE

몸도 마음도 힐링

북촌한옥마을

아이러브 Culture

포스트 디지털, 다시 아날로그



김현중 차장 자녀
김지호 군

배정호 과장 자녀
정지안 양



조효민 차장 자녀
조명은 양

조대형 차장 자녀
조성준 군

Contents

01

Coverstory



표지 모델

왼쪽부터 김현중 차장(이수시스템) 아들 김지호 군,
배정호 과장(이수엠피시스) 딸 정지안 양,
조용민 차장(이수엑사켄) 딸 조명은 양,
조대형 차장(이수화학) 아들 조성준 군

표지 작가_ 변영재

'꽃보다 봉어빵'의 히어로들. 음악만 나오면 장난기 가득한 춤을 선보인 지호, 수줍은 듯 화사한 미소를 보여준 지안이, 아끼는 사탕을 인심 좋게 나눠주던 유쾌 발랄 명은이, 과묵하지만 젠틀한 성준이까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너희들의 미소가 항상 변치 않기를 바라본다.

04

INSIDE

05 Focus & News

12 이슈를 잡아라

이수그룹 사회공헌 캠페인 '파란책방'

14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18 꽃보다 봉어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4 Show me the 팀웍

이수엑사보드 HDI연구개발팀

28 Photo essay

사진으로 말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정유진 _ (주)이수 경영지원팀 과장

김용훈 _ 이수시스템 기획관리팀 대리

30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고전 결박을 풀다>

33

OUTSIDE

34 스페셜 리포트

나의 품격을 지배하는 말 한마디의 힘

40 이수미식회

이수페타시스 이준경 사보기자 추천 맛집_ '일월정'

44 몸도 마음도 힐링

소박하고 SOSO(소소)한 여행_ 북촌한옥마을

50 헬스 인포

스마트폰의 두 얼굴, 디지털 치매

52 아이러브 Culture

포스트 디지털, 다시 아날로그

57 Ombudsman

58 퀴즈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17년 가을호 통권 90호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895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장구 · 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 · 김다혜)

이수건설(이진우)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정유숙)

이수엠피시스(박예스더) 이수엑사켄(한재원)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홍주희, 디자이너 민수기

인쇄 삼우아트(주)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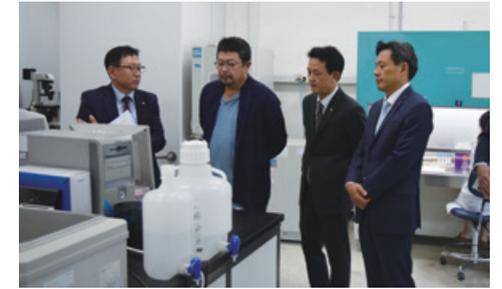
현장경영의 힘, 소통

이수화학 온산공장 방문, 신축 중인 연구동 등 살펴



김상범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이수화학 온산공장을 방문했다. 실무진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 보고를 받은 김상범 회장은 현재 신축 중인 연구동 및 Sulfur Chemical Pilot 현장동을 살펴며 직원들의 수고에 격려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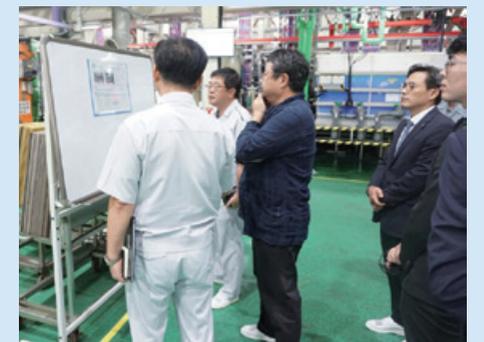
이수애플리스 생명공학 연구소 방문



김상범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이수애플리스 판교 본사에 위치한 생명공학 연구소를 방문했다. 실무진들과 함께 세포배양, 정제, 분석 등 연구원들의 실험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들의 현안을 파악했다. 특히, 김상범 회장은 “미국·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만찬에서는 임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수페타시스 공장 방문, 기회를 위한 준비 강조

김상범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을 방문했다.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애로사항을 직접 챙겨듣기도 했다. 경영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이수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 성황리에 종료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가평 베네스트GC에서 열린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로 코스레코드를 기록하며 합계 64타를 몰아친 장수연 선수의 대역전극으로 마무리됐다. 장수연 선수는, LPGA에서 국내 복귀 후 첫 승을 노린 장하나 선수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은 1978년에 출범한 KLPGA와 역사를 함께 해온 국내 5대 메이저 대회 중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고의 코스 설계와 경기 운영,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참가 선수 및 갤러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주)이수

故 김준성 명예회장님 10주기 추모식 개최

지난 8월 24일 이수그룹 본사 아이라운지에서 <故 김준성 명예회장님 10주기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추모식은 분향 및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상범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약 일주일간 운영된 추모 공간에서는 임직원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추모 영상 및 사진전을 통해 명예회장의 뜻을 기렸다.



그룹 신규사업협의체 개최

지난 9월 26일 이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그룹 신규사업협의체가 열렸다.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신규사업협의체는, 그룹 내 신규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11개 계열사의 기획·신규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모여 신규사업 현황 등을 공유 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담당 사업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열린 토론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는 등 신성장 사업 동력 발굴에 대한 참석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화학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진행

이수화학은 지난 8월 18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가정과 소통하는 일터'라는 취지로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를 가졌다. 초청된 50여 명의 자녀들은 안전교육 이수 후 부모님이 근무하는 이수화학 공장을 둘러보고,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분사 등 안전 소방체험 활동도 가졌다. 또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오인철 박사의 강연을 비롯해 국립수산과학관도 찾았다.



이수페타시스

2017 자원순환 선도기업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자원순환 선도기업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촉진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을 의미하며, "폐수 중 구리 회수를 통한 폐수 슬러지 발생량 저감"이라는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올해는 4개월간 선정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 9개 사가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수건설

'2017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이수건설은 지난 8월 '2017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의 주인공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단지인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로, 작년 11월 뜨거운 관심 속에 완공되었다.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단지 내 수만 그루 이상의 초목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 생활공간을 조성했으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이수시스템

제주항공에 AFP솔루션 공급

이수시스템은 지난 9월 제주항공 '차세대 항공정비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 AFP(Auto Form Processing, 자동 양식화)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 AFP 솔루션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펜과 종이를 활용해 현장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하는 제품이다. 금번 AFP 솔루션 도입으로 현장 정비 데이터의 입력 자동화, 수집 데이터의 ERP 실시간 등록, 정비 문서의 기록 이력 강화 등 정비 데이터의 정확성과 책임정비의 정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창업투자

〈희생부활자〉, 〈대장 김창수〉 등 상영작품 소개

이수창업투자는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7~9월에는 영화 〈군함도〉, 뮤지컬 〈레베카〉가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10~12월에는 한국 영화 〈희생부활자〉, 〈대장 김창수〉, 〈소중한 여인〉, 〈신과 함께〉와 외화 〈딥〉, 〈어쌔신:더 비기닝〉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영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ISU-S&M콘텐츠투자조합 2호 결성총회 개최

이수창업투자는 지난 7월 5일 김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ISU-S&M 콘텐츠투자조합 2호'의 결성총회를 가졌다. 'ISU-S&M 콘텐츠투자조합 2호'는 2017년 1차 정시 출자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총 240억 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향후 5년간 중·저예산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발굴 및 투자할 계획이다.



이수엑사캠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열려

이수엑사캠은 지난 9월 1일 창립 1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기념일 자축과 함께, 근속 사원 및 모범 사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시상 후에는 원준연 대표이사의 '이수엑사캠 비전 2021' 설명회를 통해 이수엑사캠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임직원 모두가 모인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2017년을 돌아보며, 경영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수엑사보드

Clean 활동 실시

이수엑사보드는 지난 9월 2일 깨끗하고 청결한 근무지 조성을 위해 A동 설비 Clean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노광실 설비 녹 제거 및 도색작업으로 노후화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이를 관리를 통해 설비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수그룹 사회공헌 캠페인 ‘파란책방’ “파란책방에 놀러오세요!”

글_ 이찬세 과장(주)이수 브랜드관리팀



지난 8월 8일, 반포사옥 아이라운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풍스런 월넛 컬러의 책장이 아이라운지 한가운데를 차지했는데, 이 책장은 바로 이수인들의 도서 기부로 만들어가는 ‘파란책방’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기부해주신 책들로 구성된 리더의 책장이 먼저 눈에 띄는데, 이 코너는 지난 봄호부터 사보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회장님의 추천 도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수 가족들의 기부로 모인 도서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도서들은 향후 필요한 곳에 기증하기 전까지 이수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여러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 셈이지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또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만으로도 CSR을 이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부나 후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수그룹도 CSR의 실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수페타시스는 CSR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수화학도 사내 봉사단을 통해서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룹에서는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수그룹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CSR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책방’의 핵심 테마는 책입니다. 사보의 ‘리더의 책장’ 코너를 유심히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상범 회장님은 책을 많이 읽기로 소문난 독서 애호가이십니다. 이수그룹 또한 오래 전부터 사내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통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임직원들의 책 읽기를 장려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을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서 기부라는 테마가 선정되었고, 단순히 도서를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수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하는 즐거움도 전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란책방’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이 빈 만큼, 파란책방의 책장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진



책장의 크기만큼 나눔의 크기도 커집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파란책방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파란책방’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수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작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읽지 않는 책 한 권을 기부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반포 사옥 아이라운지에서 이수가족들이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둘러보고 아직 읽어보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책방 ‘파란책방’ 이용하기



반포사옥 아이라운지의 ‘파란책방’은 이수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책장 안쪽의 대여 장부에 기록한 후 언제든지 책을 빌려가서 읽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파란책방’에 기부하기

- ① ‘비체나박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체나카드’를 챙깁니다.
*‘비체나’란 ‘비용, 채움, 나눔’의 앞 글자를 딴 캠페인 키워드입니다.
- ② 비체나카드에 이름을 기재한 후 기부할 책의 표지 다음 장에 붙입니다.
- ③ 이제 ‘비체나박스’에 책을 넣어주시면 기부 완료!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회사생활과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 투성일 때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경험과 연륜, 지혜와 진심이 담긴
조언이 전해집니다.

“업무 중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선배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Q

임정희 사원 (이수애플리스 RA팀)



A

하정민 차장
(이수페타시스 영업2팀)

설득을 위해 제가 하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고, 상대방의 현재 감정은 어떤지 파악합니다. 또 적절한 공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이나 컨디션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노력합니다. 즉,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때가 됐을 때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의견대로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말합니다. 흥분이나 분노, 우울 등 불안정한 감정일 때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 상대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정되었을 때 의견을 전하는 것이 설득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거에 상대방과의 좋은 추억이 있다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의 시간들을 짧게나마 되새겨보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들이 있나요?”

윤영준 사원 (이수엑사보드 HDI연구개발팀)

Q



이호철 대리
(이수화학 재경팀)

돌이켜보면 저도 결혼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고 싶던 일들이 꼭 결혼 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여행을 가길 원한다면 결혼 후에 든든한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해도 꽤 행복합니다. 또 무엇을 배우고 싶을 때, 동기부여를 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다면 더욱 힘이 나죠. 물론 아기가 생기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혼 전에 해봐야 할 좋은 일들을 꼽아 달라면 제 경험을 비추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가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곤 했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는 함께 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군요. 두 번째는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기'입니



다. 결혼 전, 독립해서 혼자 살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을 앞둔 분들이 결혼 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해봐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선배로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면 더 좋을 일들이 많고, 현재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후회는 없을 테니까요.

“재미있는 E-러닝 과목을 알려주세요!”

백종주 사원 (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Q



최예화 과장
(이수시스템 SaaS서비스팀)

이수그룹 E-러닝에는 직무별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과정 등 많은 분야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러닝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조직생활을 위한 팁을 얻고 있습니다. E-러닝에는 과거에 화제가 되었던 웹툰 <미생>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도 몇 개 있는데 교육의 진행이 <미생>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재미있습니다. 바둑에 빗대어 표현된 직장인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한 팁을 미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자기개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독서통신 교육은 생활 속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업무가 바빠 온라인 교육과정이 부담된다면 독서통신 교육을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책

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의 한계가 내가 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 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어떤 상황에 프레임을 다르게 적용하면 다른 결과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숨가쁜 직장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무조건 힘들고 피로하다는 프레임 안에 가두지 말고 가치 있는 자기개발이라는 프레임 안에 둔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님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긍정적인 프레임 안에서 조금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꽃보다 붕어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특별한 시간



예전에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들의 주니어를 보는 신기함과 가공되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어 꽤 인기를 끌었다. 특별한 무언가가 없이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특별해진 현대의 부모와 자녀 사이. 어쩌면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나마 자녀의 소중함과 부모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 그 프로그램이 더 진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가을호 <ISU>에서는 이수인들이 주니어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멋진 사진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그들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

대담 진행 _ 김정희 대리((주)이수 브랜드관리팀)



조대형 차장 + 자녀 조성준

두 분 소개와 사보 출연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조대형 차장 저는 이수화학 총무팀에 근무하는 조대형 차장입니다. 오늘 제 붕어빵은 초등학교 1학년인 조성준 군입니다. 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용민 차장 이수역사캠 영업1팀에 조용민 차장입니다. 저희 집 공주님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명은이와 이렇다 할 추억이 없었는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 행복합니다.

김현중 차장 안녕하세요! 이수시스템 HR사업팀 김현중 차장입니다. 오늘 저의 두 번째 닳은 꿀 김지호 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작품 사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정호 과장 이수앱지스 임상팀 배정호 과장입니다.

니다. 지안이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게다가 사보 출연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저희만의 찰떡궁합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조대형 차장 저희가 가장 닳은 곳은 누가 봐도 얼굴이죠. 말 그대로 붕어빵입니다. 두 번째로는 뱃살이라고 할까요?(웃음) 식구들 말로는 걸음걸이와 잠자는 모습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정 못하겠지만 아내 말로는 잘 빠지는 것도 서로 닳았다고 하네요. 하하~

조용민 차장 주변에서 눈, 코, 입이 판박이라고 하네요. 특히 제가 국물을 마실 때 '후루룩' 효과음을 내는데, 저희 딸도 국물을 마실 때 똑같이 효과음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 닳은 걸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김현중 차장 외모는 그냥 'Ctrl + C, Ctrl + V' 인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잠잘 때 한쪽 바지만 올리고 자는 버릇, 애교 섞인 행동을 하면서 눈을 깜빡거릴 때보면 영락없이 제가 보이네요.

배정호 과장 저와 지안이는 얼굴형 정도가 닳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외모는 우리 지안이가 훨씬 더 예쁘거든요.(하하) 저희는 말투가 비슷한데요, 말을 하기 전에 '음~ 어~'라고 하는 습관이 똑같답니다. 그리고 늘 해피바이러스를 장착하고 다니는 것도 닳은 점인 것 같네요.

최근에 아이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조대형 차장 뱃살도 저를 닳았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뱃살 때문에 걱정이 된답니다. 종종 과하게 먹을 때는 조금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조용민 차장 + 자녀 조명은

등원도우미 선생님께 맡기고 나올 때면 측은하죠. 그래도 탄력적 근무유연제 덕분에 하원할 때는 마중 나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자녀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조대형 차장 지난여름에 성준이와 함께 한탄강 래프팅을 했습니다. 스릴과 재미가 대단하다고요. 조금 더 크면 자전거나 도보로 전국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아들과 함께 값진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흐뭇하네요.

조용민 차장 저는 명은이와 뉴질랜드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연이 주는 상상 이상의 감동을 명은이와 함께 느껴보고 싶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캠핑하기'. 빨리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요, 그럴 때 자기를 굶긴다면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이 미안했죠. 아들이~아빠는 성준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란다! 알겠지!

조용민 차장 작년에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잦은 출장과 야근을 해 아이의 얼굴을 거의 못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명은이가 출장과 야근 좀 그만 시키라고 사장님께 편지를 썼으니 전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죠.

김현중 차장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무엇을 할 때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혼내더라고요. 늘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아이를 다그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배정호 과장 워킹맘이라면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은 딸을

김현중 차장 + 자녀 김지호



- 이름: 정지안
- 나이: 6세
- 특기: 영어 노래, 발레
- 장래희망: 탐색 중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요. 아빠 엄마랑 나들이하고 들어오는 길에 멋진 장난감까지 사면 그 날은 최고의 날인데, 오늘은 꼭 그런 기분이에요. 개구쟁이 우리 아빠는 저와 동생 서우에게 늘 장난을 치시는데, 재미있긴 하지만 조금만 장난을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엄마와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거예요!”

- 이름: 조성준
- 나이: 8세
- 특기: 성대모사, 막춤, 그림 그리기
- 장래희망: 경찰



“사랑하는 아빠, 사실 오늘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니 너무 즐겁고 떨렸어요. 내가 아빠와 권투를 할 때 아빠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 줄 때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끔 나를 돼지라고 놀려서 아빠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놀이공원에도 데려가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아빠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 이름: 김지호
- 나이: 6세
- 특기: 댄스, 나무타기
- 장래희망: 경찰, 소방관



“오늘은 기분이 짱이에요! 저는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제가 잠들기 전에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빠는 다 좋지만 제게 화를 내면서 무섭게 말할 때는 정말 싫어요! 제발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쁘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 이름: 조명은
- 나이: 8세
- 특기: 그림 그리기, 피아노
- 장래희망: 헤어디자이너, 아이돌 그룹



“아빠랑 둘이 예쁜 옷 입고 사진을 찍으니 내가 꼭 연예인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언제나 명은이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주는 아빠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한 가지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빠의 뱃살이 사라져서 아빠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명은이가 기도할게요. 아빠도 운동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아빠와의 데이트 너무 행복했어요!”



김현중 차장_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대한민국 문화유산 답사’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로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배정호 과장_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지안이가 어려서 그리고 더 어린 동생이 있어서 10년 후에나 꿈꾸 볼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과 꼭 유럽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풍경과 음식, 문화 등을 같이 공감하면서 추억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네요.

사보를 통해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조대형 차장_ 언제나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준아~ 아빠는 우리 성준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사랑한다!

조용민 차장_ 사랑하는 명은아! 아빠는 명은이가 지금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면 더 바랄게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빵점 맞아도 되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파이팅하자! 알겠지!

김현중 차장_ 늘 밝게 웃는 지호아! 아빠는 지호가 딱 지금처럼만 웃어주면 행복할 것 같구나! 세상 모든 시름도 잊게 만드는 너의 웃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기를 바란다.

배정호 과장_ 엄마가 지안이에게 바라는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란다. 그리고 굳이 셋째를 보태자면 씩씩한 지안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의 행복이 곧 엄마의 행복이란다. 사랑해~ 지안아!



왼쪽부터 김현중 차장(이수시스템), 조용민 차장(이수역사), 배정호 과장(이수앱지스), 조대형 차장(이수화학)

배정호 과장 + 자녀 정지안



〈독자연서〉에서 베스트 블어썬 컵을 뽑아주세요. 선정된 가족에게는 영화예매권(4매), 참가해 주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앞줄 왼쪽부터 구자경 사원, 장진현 사원, 박성달 부장, 정용우 과장, 서방권 과장, 이충호 사원, 김환철 대리, 차호택 대리, 윤영준 사원



앞줄 왼쪽부터 양하늘 대리, 이기오 차장, 신명수 대리, 김인수 사원, 이대희 사원, 김길영 대리, 김법수 주임, 윤규택 사원, 이신명 사원, 윤선호 대리

이수엑사보드 HDI연구개발팀

글로벌 HDI 전문기업을 향해 달리GO, 달리GO, 달리GO

이수엑사보드는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 부품, IT 기기 등에 들어가는 메인보드(PCB)를 제조하는 회사로 연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며 그룹 내 PCB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PCB 산업은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커져 인류의 욕구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비전사업이다. HDI연구개발팀은 이수엑사보드가 IT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팀의 경쟁력은 팀웍

이수엑사보드 HDI연구개발팀은 신규 원자재 물성 평가와 고객사(삼성, 엘지, 애플 등)에 신규 모델을 투입하기 전 양산성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춘 공정 표준화 설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DI연구개발팀은 박성달 부장을 필두로 연구개발 파트, 회로·가공 파트, 도금 파트로 나뉘어 27명의 팀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꽤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있어 얼핏 보면 조직 내 협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

만 박성달 부장은 팀의 경쟁력은 다름 아닌 '팀웍'이라고 말한다.

“소통의 어려움은 팀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죠. 특히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정확하고 간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팀원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나누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단, 엔지니어의 습성 상 회의는 늘 짧고 굵게 끝내죠.”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결정한다는 박 부장은, 모든 팀원들은 동등한 파트너이며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존중과 신뢰'를 항상 우선한다고. 이러한 팀 내 분위기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게 만들고 팀원들을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 최근, 이수엑사보드가 LG와 삼성 두 회사 모두와 거래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HDI연구개발팀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팀웍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국내 유일, 삼성과 LG 동시 납품

올해 HDI연구개발팀의 가장 큰 성과는 삼성과 LG 등 주요 고객사와 신규 고객사의 Flagship 모델 양산 및 수출 안정화, 신규 모델·공법 및 자재에 대한 양산성 적용 평가 완료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PCB 제조사 중에 경쟁사인 삼성과 LG에 동시 납품을 하는 곳은 이수엑사보드가 유일하다. 이것은 고객이 만족할만한 품질과 제품 납기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HDI연구개발팀은 안주하지 않는

다. 점점 미세해지고 슬림해지는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따라 잡으려면 갤럭시S8, Note 8에 사용된 회로폭 30um에 기판두께 0.65mm를 구현한 메인보드 PCB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갤럭시S9에는 갤럭시S8에 들어간 PCB보다 더 밀집된 부품 장착이 예상된다. 또 mSAP라는 신규 공법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저희는 성과에 기뻐하기 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새로운 설비 Set-up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성달 부장은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하라’고 강조한다. 그래야 스마트폰의 미래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수엑사보드가 그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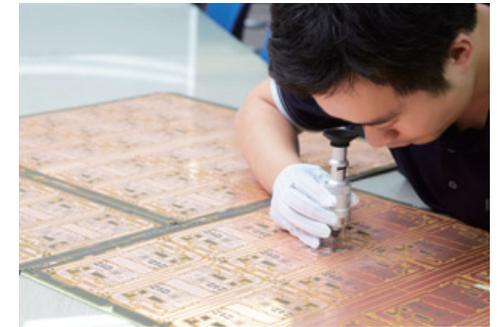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HDI연구개발팀은 업무의 특성상 생산현장과 미래 기술을 연결하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한다. 제품 생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진행되는 테스트가 정해진 기한까지 올바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과 조율하는 과정도 HDI연구개발팀의 몫이다.

“생산라인에는 언제나 다양한 양산, 샘플 제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라인 투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지정해야 하고, Test Matrix를 효율적으로 작성해 낭비되는 시간과 제품을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타 제품 생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죠.”(이기오 차장)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다. 그것도 시간이 생명이라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매일, 매 시간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하는 HDI연구개발팀. 사정이 이렇다보니 팀 내 어려웠던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팀원들은 매일이 고난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고난과 위기’를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고난과 위기의 오늘날지라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내는 성공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서방권 과장)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의 HDI연구개발팀은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고수들이다. 이 정도라면 향후 그들이 그리고 있는 사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곧 가시적인 성과로 다가올 것 같다.

박성달 부장의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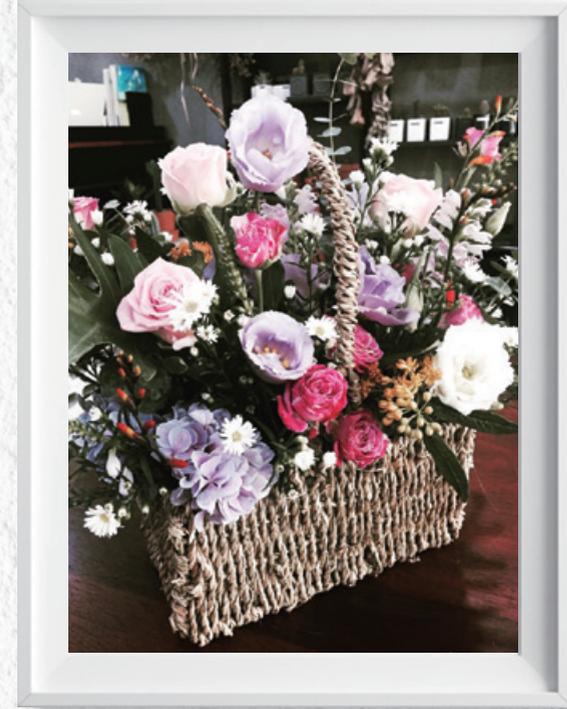


제가 입사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고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고객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이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때가 변화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렵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객이 제안하는 제품 사양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금껏 잘 해준 우리 팀원들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멋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최연소 사보 애독자 사연 _ 정유진 과장(주)이수 경영지원팀

이제 태어난 지 9개월 된 저희 집 귀염둥이 수현이랍니다.
 아직 책 자체를 모르는 나이인데, 유독 사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진도 유심히 살피고, 다 보면 또 보고 또 보고...
 종이도 조물조물 만져보고,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봅니다.
 특히 지난 호의 <이수미식회> 칼럼에 나온 청국장 사진은 손으로 톡톡 건드리면서
 이런 저런 용알이를 한참 하더라고요. 어찌나 신기하고 웃기던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배달되는 사보.
 '사보가 언제 오나'하고 눈빠지게 기다리는 9개월 애독자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꽃바구니 사연 _ 김용훈 대리(이수시스템 기획관리팀)

그녀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영문을 모르는 그녀는 꽃바구니 속에 살포시 얹은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탓에 부모님에
 게는 무뎠고 아들에게는 투박했던 어머니. 반 백 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
 간이 한 두 번이었을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익히 짐작은 했지만 마땅히 표현하지 않은 나도 어머
 니 아들이 만나보다. 이제야 겨우 생일에 꽃다발을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을 보면 말이다.
 꽃 선물을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사랑, 누군가에게 감사와 존경, 또 누군가에게 인생의 의미이기
 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꽃 한 송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애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꽃을 빌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결연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
 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hee895 / 이메일: jhk653@isu.co.kr

이수인에게 권하는 김상범 회장의 '좋은 책'

매번 서재의 책장 앞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책을 권해볼까?'

이 책 저 책을 만지작거리며 고심 끝에 한 권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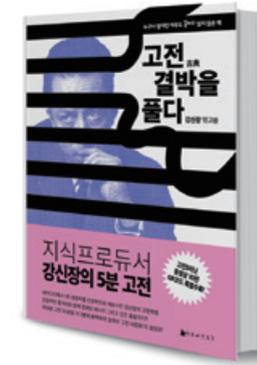
그리고는 한참을 쳐다보며 마음을 담죠.

내가 느꼈던 그 이상의 배움과 가치가

우리 이수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어떤 의식 같은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권의 책으로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읽기의 숙제를 풀지 못한
당신을 위한 책

고전 결박을 풀다

| 저 자 | 강신장

| 출판사 | 모네상스

저자 소개

저자 강신장은 '분방하고 또 집요한' 이질적인 두 속성을 모두 가진 58년 개띠이다. 새로운 생명은 가치의 재해석을 통해 탄생한다고 믿기에 '가치 디자이너' 또는 '컨셉 크리에이터'로 불리고 싶은 사람.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CEO 커뮤니티, 'SERICEO'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제작자이자 1만 명 이상의 경영자들을 '창조경영 학교'로 등교시킨 유혹의 달인. 그가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제품에는 인문학과 문화, 예술이 숨 쉬고 있기에 유익하기에 앞서 늘 흥미롭다. 삼성에서 26년을 일한 골수 삼성맨이기에 숙명적으로 소심하고 세심한 완벽주의자이지만, 삼성맨답지 않게 엉성하고 엉뚱하고 여유로운 기질이 있다.

원작의 매력을 정확하게 살려낸 줄거리와 명문장, 시의적절한 메시지, 깊은 통찰까지!

분명 책을 읽었는데도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책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미숙한 상태에서 읽거나, 혹은 흥미 없이 의무감으로 읽었을 때 이런 현상은 더 잦다. 고전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용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소개하느냐이다. 책 한 권을 통으로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의 리뷰를 읽으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의 힘이다. 동서양 필수고전 30권을 엄선해 담은 <고전 결박을 풀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줄거리 소개에 공을 들여 원작의 맛을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축약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새 작품을 구성하듯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에 심혈을 기울여 담아냈다. 그리고 책 속의 명

문장 혹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따로 소개하여 독자가 원작의 감동을 더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내용 소개뿐만 아니라 평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주제가 무엇이고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쓰인 이 책이 21세기의 현대인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주제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책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페스트는 비극적인 인간 조건, 한계 상황, 부조리한 삶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페스트 앞에 무사하지 않다. 당신의 삶에서 페스트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 알베르 카뮈 <페스트> 편 중에서

“안티고네는 양심이라는 ‘자연법’과 왕의 명령이라는 ‘실정법’ 사이에서 양심을 택하여 시련을 겪게 되는 비극의 여주인공이다. 법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무 사이에 있는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화두다. 법과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를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는가?”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편 중에서

이 책의 색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글자만큼이나 그림의 비중 또한 크다는 것이다. 단순한 삽화가 아니라 활자와 함께 책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중

요한 텍스트로서 가능하다. 이 책에 실린 모든 고전들이 ‘고전5미닛’이라는 5분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10편의 QR코드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세기 영상 이미지의 시대에 맞춰 단순히 읽는 책을 넘어 보는 책으로 도서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인류가 남긴 위대한 고전으로 내 삶의 결박을 풀다

한 사람이 가진 상상력은 그가 가진 레퍼런스의 두께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빛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가장 위대한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어가며 고전(苦戰)을 해도 우리가 고전(古典) 읽기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고전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 의미와 포인트를 가장 똑똑하게 짚어주는 고전 안내서가 될 것이다. 고전을 읽은 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놓친 핵심과 메시지를 되새겨주는 든든한 고전 복습서가 될 것이다. 고전 읽을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될 때 이 책을 읽으면 정제된 줄거리와 명문장, 메시지, 통찰까지 일석사조로 해결하는 완벽한 고전 솔루션이 될 것이다.

고전은 두껍고 난해하며 정복하지 못할 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책 <고전 결박을 풀다>. 고전(苦戰) 없는 고전 읽기가 시작된다.

OUT
SIDE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나의 품격을 지배하는 말 한마디의 힘

'개저씨'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주로 여성이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이죠.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떠올려볼까요. 남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 끝마다 "어디 여자가?"라는 폭언을 내뱉습니다. 지하철에서 흔히 보는 경우도 생각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는 말을 하며 한 아저씨가 욕을 합니다. 모두 '개저씨'들입니다.

이들이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말투 때문입니다. '개저씨', '개줌마'가 아니라 젠틀맨, 젠틀우먼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자신의 말투를 살펴보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말투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호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호감형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 말투의 개선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글 _ 김범준(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강사)

나와 상대방 모두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말투

사물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봐야 합니다. 책상을 산다고 해볼까요. 걸의 좋은 모습도 중요하지만 흔들거리지는 않는지, 서랍은 잘 여닫아지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에 장점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부족하면 부하를 '사용'하는 잔인한 리더의 말투, 아들을 '사용'하는 억압적인 엄마의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말투를 '메이크업'(Make up) 말투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투를 '메이크업'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떡볶이집 사장: "만 원입니다."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맛있게 드셨어요? 만 원입니다."

그냥 카페 알바: "주문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카페 알바: "기다리느라 불편하셨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냥 중소기업 부장: "잘하셨습니다!"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 "이 모든 성과는 김 대리 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저 그런' 혹은 '그냥' 말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절한', '성실한', '배려심 가득한' 말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꽃에서는 향기를 기대하고 사람에게서는 배려를 기대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로 느껴지게 하는 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용해 보세요. 나는 물론 상대방도 훨씬 좋아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통으로 향하는 대화의 문을 여는 '긍정탐구' 말투

한 상담사가 게임 중독 초기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 남학생이었습니다. 짜증 가득한 얼굴로 들어온 이 남학생을 두고 상담사는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게임 시간이 많다고 엄마가 걱정하시네.”

“.....”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머뭇거리다) 세 시간이요.”

“(놀라는 표정으로) 세 시간? 뭐야, 세 시간이면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네?”



대화의 방법론 중 '반대편에 서지 않기'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탐구' 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는 대화법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사든, 부하든, 고객이든 관계없이 말투의 기본으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를 계속해서 볼까요. 학생은 이미 부정적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상담할 사람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반대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다 나오고 싶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라, 상담사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장점에 집중해줍니다.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안한 건 바로 학생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 엄마가 너무 민감하시다. 그치?”

“음... 이제 고3 되는데 세 시간이면 좀 많긴 하죠.”

대화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일단 대화 상대방의 반대편에 서는 말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화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포용'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화란 자신의 것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긍정탐구' 말투가 그 핵심입니다.

어쩌면 말보다 더 중요한 '몸짓' 말투

한 벤처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일어났던 불쾌했던 경험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팀원 한 명이 자신의 노트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듣는 동안 마는 동안 짓을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라는 무시의 표현과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중 하나로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의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Spoken Language)은 커뮤니케이션에서 7퍼센트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3퍼센트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38퍼센트는 ‘목소리’(Voice Tones), 나머지 55퍼센트는 ‘몸짓’(Body Language)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회의 시간에 무의미한 낙서에 몰입하던 부하직원을 머리에 다시 떠올려볼까요. 상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약 8배가량 더 강하게 관심 없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대화의 내용 그 이상으로 말투가 상대방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나는 참극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말합니다. “말하는 건 역시 너무 어려워”, “말이 안 통 해서 죽겠어” 생각해보면 신경 쓰기 귀찮아서, 조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던 우리의 말투 때문 아니었을까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투부터 점검하고 바꿔보십시오.

“올바른 논리, 정확한 문장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성공 열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논리와 내용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용보다는 말투가 대화의 모든 현장을 지배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버리세요. 대신 사랑과 공감 가득한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당신이길 기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회사 앞 맛집 소개 × 이수페타시스 이준경 사보기자

추천 맛집 _ 일월정(대구 달성군 논공로 697-5, 053-615-0558)

ISU 사보기자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한다. 회사 근처, 우리만 알고 있던 맛집을 이수가족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 사보기자와 함께 하는 맛집 찾아 삼만리. 이번호에는 이수페타시스 이준경 사보기자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대구 달성군 '일월정'을 소개한다.



탕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푹 고은 독계탕

대구 달성군 비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일월정'은 이수페타시스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맛집이다. 일월정 입구에는 '토속 한정식 전문점'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지만 정작 일월정의 이름을 알린 아이템은 새카만 삼계탕 '독계탕'이다.

이준경 사보기자는 이수페타시스 직원들 사이엔 '상사님이 맛있는 것 사주실 때 꼭 가고 싶은' 음식점으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맛집으로 추천했다. 한번 맛보면 누구나 단골이 된다며 '엄지척'이다.

이수페타시스 직원들의 단골집이라 그런지 사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다. 직원들끼리 오면 똑배기에 담은 '독계탕'을 주문하지만 오늘 주문한 메뉴는 3~4인분으로 먹기에 적당한 '독계탕 한 마리'이다. 새카만 '독계탕 한 마리'가 맛갈스러운 밑반찬과 함께 차려진다. 까만 색깔의 비밀은 흑마늘이다. 삼계탕의 핵심이 인삼이라면 독계탕

추천 이유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준경 사보기자입니다. '일월정'에서 개발한 독계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흑마늘을 주재료로 한 흑마늘 요리인 동시에 닭 요리입니다. 몸보신을 위한 영양 만점 음식이면서,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최고입니다. 곧 돌아올 겨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독계탕 한 그릇 어떨까요?



의 핵심은 흑마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삼을 빼고 흑마늘을 주재료로 만든 독계탕은 전주연 대표가 음식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해 2011년 3월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독계탕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독특한 맛의 비결에 대해 궁금해 한다. 처음에는 전주연 대표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었으나 요즘은 아예 방마다 '독계탕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안내문에는 "국내산 토종 육종마늘로 직접 만든 흑마늘과, 육종용, 천궁, 황기, 구자, 황기, 밤, 대추 등 아홉 가지 한약재를 토종닭과 함께 가마솥에 3시간가량 탕

약을 달이듯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맛의 비결은 영업비밀이다.

닭요리가 아니라 흑마늘 요리예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푸짐하게 들어간 요리지만 전주연 대표는 '독계탕의 주재료는 한약재로나 닭이 아니라 흑마늘'이라고 강조한다. "흑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요리로 만들어 먹을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흑마늘을 요리처럼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고민하다가 독계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

맛있는 음식은 많다. 자극적인 맛으로 혀끝을 유혹하며 유명세를 타는 맛집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음식은 드물다. 일월정 독계탕 한그릇을 먹고 난 느낌은 '맛있는 데다 몸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실 닭은 흑마늘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부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마솥에 넣고 한 번 끓일 때마다 마늘 2줌 반이 들어간다고 한다. 독계탕 뚝배기 한 그릇에 평균 15알 내외의 흑마늘이 들어가는 셈이다. 일월정의 독계탕은 처음에는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 인근 공단 직원들 사이의 동네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었다가 비슬산 등산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전국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전국구 맛집으로 등극했다.

독계탕 자체도 맛이 좋지만 밑반찬도 두세 접시씩 새로 갈아야 할 정도로 맛있다. 원래 일월정이 한정식 집이라 밑반찬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 이란다. 집에서 직접 담근 집간장과 매실청, 된장 등으로 간을 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고 귀띔한다. 된장과 볶은 들깨로 소스를 만든 샐러드도 입에서 살살 녹는다. "밑반찬은 재료 본래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 있어요. 맛을 내겠다고 갖은 양념을 섞으면 재료 본래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반찬을 만들 때도 서너 가지 이상의 양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많다. 자극적인 맛으로 혀끝을 유



혹하며 유명세를 타는 맛집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음식은 드물다. 일월정 독계탕 한그릇을 먹고 난 느낌은 '맛있는데다 몸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이준경 사보기자도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감기기운이 있을 때면 꼭 찾는 곳이라고 하니 '건강식'이 확실하다. 더 비할 것이 뭐가 있을까.

오롯이 나만을 위해 떠나는
소박하고 SOSO(소소)한 여행

서울 도심 한복판 조선의 뒷골목 산책

북촌한옥마을

‘올로 YOLO’와 ‘소소 SOSO’가 유행이란다. 요란하고 거창하기보다 느릿하고 소박하면서도 평범한듯하지만 자신의 취향을 듬뿍 담은 여행. 아마도 각박한 현실을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희망사항을 고스란히 반영한 세태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속에도 그러한 트렌드에 꼭 알맞은 핫 플레이스가 있다.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한옥마을이 그곳이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산책,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촌의 정겨운 골목길을 걷다보면 그간 잊고 살았던 소박하고 소소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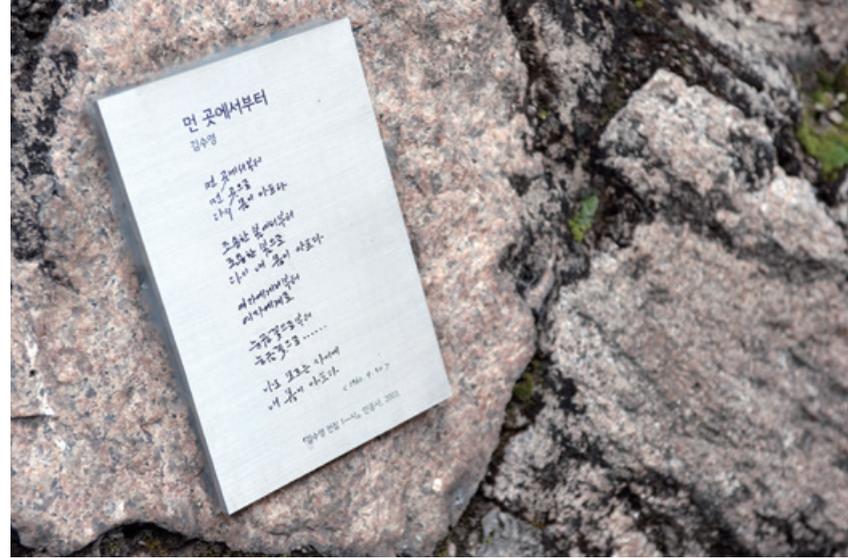
글 / 사진_이마로

나를 찾아 떠나는 소소(小小)한 여행



올해 상반기를 장식했던 여행 키워드가 '올로 YOLO(You Only Live Once)'였다면 하반기에는 'SOSO'가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그룹 위드컬처의 컬처마케팅 연구소가 발표한 이 키워드는 '느리지만 확실히(Slowly but Surely)' '평범한 일상(Ordinary Occasion)' '소리 없이 멋진 삶(Silent, but Wonderful Life)'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함(One of a Kind)'의 알파벳 앞 글자로 만든 신조어다.

'SOSO'는 묘하게 우리말 표현인 '소소하다'와도 썩 잘 어울린다. 요란하고 거창한 여행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나 자신의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여행.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라면 좋지만 혼자여도 상관없는 '소소한 여행'이 그것 아닐까? 서울 종로구 가회동을 중심으로 삼청동과 계동 일원에 자리 잡은 북촌한옥마을은 아마도 소소한 여행이라는 테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네일 것이다.



옛 서울이 궁금할 때는 북촌 골목을 걷자



서울 시내에서 그 역사가 100년 이상 된 문화유적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질곡의 조선왕조 오백 년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궁궐에만 가보아도 우리는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박제된 동물처럼 눈으로 보기만 해야 하는 문화유적에서 삶의 온기까지 느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에 나가 걸어보라.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온 물길들이 굽이쳐 흐르던 개울은 복개공사로 덮여 아스팔트 도로가 되고 가옥들은 대부분 개량한옥으로 바뀌었으나 북촌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풍경은 바뀌되 북촌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미로처럼 얽힌 삼청동, 가회동, 계동의 골목길을 걷노라면 아직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70년대 풍경과 수백 년 전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 중첩된 놀라운 광경이 우리를 맞이한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전형적인 남향의 산자락을 따라 성 안에서 일을 보는 소위 고위공무원들의 집이 이곳 북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청계천과 종로 북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북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이곳은 조선왕조가 몰려나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도 박영효, 김옥균 같은 개화파 인물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북촌은 지금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했다. 주택난으로 인해 택지가 잘게 분할되었고, 넓은 땅에 지었던 커다란 가옥들이 헐린 자리에 아담 사이즈의 한옥들이 들어서면서 북촌에 서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것. 70년대 도심 속 동네 풍경을 연상케 하는 좁은 골목길 끝 집에는 지금도 툇마루 아래 옹기종기 모인 신발들이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남산과 종로를 품은 가회동 한옥 처마



북촌에서 한옥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은 가회동이다. 19세기 말에 세워진 '김형태가옥', 고종 11년에 세워진 '백인제가옥' 그리고 일제시대 개량 한옥 형태로 지어진 '한씨가옥' 등이 가회동을 대표하는 한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의 골목길은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북촌의 명소. 특히 '북촌8경' 중 하나인 31번지를 통과하는 골목의 경우 경사진 길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지켜 올라간 처마들 사이로 종로1가와 멀리 남산타워가 시야에 들어온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독특한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진기한 모습일 것이다. 몇 년 사이 북촌이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나면서

부자들의 별장 같은 고급 개량한옥들이 대거 들어섰지만 이곳에서는 아직도 서민들의 정겨운 생활상이 묻어난다. 점심시간 즈음 미로처럼 얽힌 길을 누비다 들어선 막다른 골목의 어느 집 창문을 통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채근하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도 함께 말이다.

조금 더 왁자한 골목이 그림자면 현대사옥에서 출발해 중앙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계동길'을 거닐어 볼 것을 권한다. 골목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목욕탕과 온갖 잡동사니를 문 앞에 잔뜩 쌓아놓은 철물점 등 계동 골목과 역사를 함께 해왔을 가게들이 오밀조밀 모여 마치 70~80년대 서울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듯하다.

근현대사의 모습이 중첩된 조선의 뒷골목



창덕궁 담벼락을 따라 이어지는 '창덕궁길'도 꼭 한 번 걸어볼 만하다. 돈화문에서 시작해 경추문을 거쳐 외삼문에서 끝나는 창덕궁길에는 어지럽게 얽힌 전깃줄 사이로 조각하늘이 펼쳐지고, 궁 담벼락 바로 옆 놀이터에서는 동네 아이들 뛰노는 활력으로 가득하다.

지금은 북개공사로 인해 옛 흔적을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창덕궁길 끝자락에는 옛날 이 동네 사람들이 옷가지를 빨던 빨래터가 남아 있다. 궁중 여인들이 물에 쌀겨나 조두 등을 넣어 세수를 하고는 했는데, 그 뽀얀 빗갈 물에 빨면 때가 잘 빠진다고 하여 아낙들이 이곳에 모여 빨래를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북촌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곳은 아마 삼청동일 것이다. 삼청동길은 이제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따라 전통한옥 혹은 모던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옷과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다.

그 변화한 길에서 가파른 계단을 따라 '화개1길'로 올라서면 만 세상이 펼쳐진다. 오가는 차와 사람들로 꽉꽉 막힌 삼청동길과는 달리 한갓지기 이룰데 없는 길이라서 일까. 화개1길 축대에서 굽어본 삼청동은 색다르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기와지붕 너머로 종종 걸음 치며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간에는 조선시대와 현재 만큼의 커다란 시간차가 느껴진다. 북촌에는 오늘도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골목이 살아 숨 쉰다.



① 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 02-2133-1371
(북촌문화센터) bukchon.seoul.go.kr

소소 소소한 여행 준비

북촌문화센터_ 북촌한옥마을을 돌아볼 요량이라면 우선 계동길에 위치한 북촌문화센터에 들러 지도를 챙기도록 하자. 또한 북촌을 찾을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곳곳에 시설 및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주차료가 비싼 편. 자동차를 가져왔다면 상대적으로 주차료 부담이 적은 경복궁 주차장을 이용하길 권한다.



스마트폰의 두 얼굴, 디지털 치매

“스마트폰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은 더 멍청해진다.” 세계가 인정한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의 말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우리 생활의 혁명과도 같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전화번호나 음식 레시피를 알 필요가 없고 계산을 하거나 지도를 볼 일도 없다. 또 버스시간표, 스케줄 등을 굳이 외워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장하거나 검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잃은 것도 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던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거나 꺼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하면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황장애가 오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나머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계산능력이 저하되는 ‘디지털 치매’의 증상이다. 의료계는 디지털 치매를 ‘단기적 기억력 저하’로 보고 있다. 질환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뇌를 쓰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건망증이라는 것이다. 전두엽의 위

축 등 뇌의 퇴행성 변화로 심한 건망증과 기억장애, 계산력 쇠퇴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노인성 치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매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치매 발병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6년 사이 20~40대 젊은 치매 환자는 2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음주와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를 꼽았다.

대한민국은 세살배기 아기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미 그 폐해가 편리함을 넘어섰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돼 버렸다. 디지털 치매가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치매를 앞당기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적절한 두뇌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법

- ①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회사 관련 번호와 집 전화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 ② (직장 동료 아닌) 친구와 대화 중 80%는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한다.
- ③ 전날 먹은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 ④ 신용카드 계산서에 서명할 때 외에는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 ⑤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착각한 적이 있다.
- ⑥ ‘왜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⑦ 자동차 네비게이션 장치를 장착한 후로는 지도를 따로 보지 않는다.

* 이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면 디지털 치매에 해당된다.

출처_ 일본 고노 임상의학연구소

■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는 10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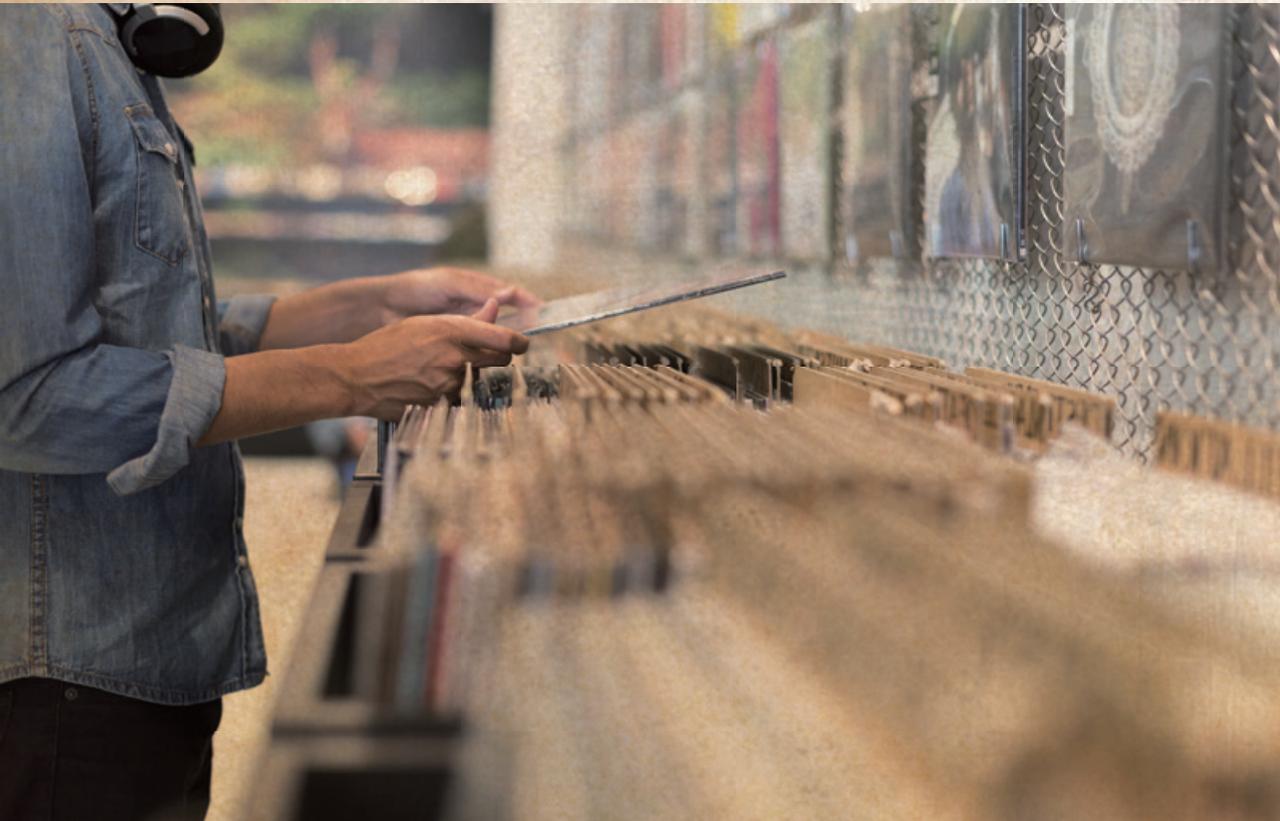
- ① 매일 30분씩 하는 운동은 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 ②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일을 줄여라.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 ③ 다른 사람을 도와라. 남을 도와주는 일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 ④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 ⑤ 가끔씩 일부러라도 음악을 들어라. 단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마라.
- ⑥ 아무런 이유 없이 웃더라도 웃음은 좋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를 자극하게 된다.
- ⑦ 삶을 단순화하라. 보다 적은 물건, 보다 적은 일정은 적은 관리와 보다 적은 의무를 요한다.
- ⑧ 친구 세 명과 함께하는 저녁은 SNS에서 300여 명과 가상접촉을 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행복하게 만든다.
- ⑨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육체와 정신 모두에 좋다.
- ⑩ 디지털 미디어를 피하라.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출처_ <디지털 치매> 만프레드 슈피처 지음 / 북로드

포스트 디지털, 다시 아날로그 그 자체로 새롭다

2004년 이후 국내에서 사라졌던 LP공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던 흑백사진관이 동네 골목으로 돌아왔다. 사장되다시피 했던 필름카메라도 부활했다.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했던 종이책은 여전히 건재하다. 단순히 '아날로그 감성'으로 회귀'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혹자는 '아날로그는 그 자체로 새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아날로그라는 새로움에 열광한다는 것이다.

글 _ 이락희(칼럼니스트)



again, analogue

인간의 감성은 디지털의 맹점을 파고 든다

“연필로 글을 쓰면 어깨가 아프고, 빼고 지우고 다시 끼워 맞추는 일이 힘들다. 그러나 연필로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 살아 있는 육체성의 느낌이 나에게서는 소중한다. 나는 이 느낌 없이는 한 줄도 쓰지 못한다.”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 중에서

가치의 기준이 '편리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아직도 종이수첩을 쓰고 LP판을 찾아 듣는 이들이 있는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닐까.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은 아마도 '아날로그적 감수성'의 시적 표현일 것이다. 기술은 디지털로 치달더라도 인간의 감성은 '아날로그' 주변을 맴도는 모양이다. 구리선으로 연결된 집전화기, 라디오, 필름카메라, 카세트테이프, 전축. 세상의 모든 것이 0과 1로 대체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들이다. 이제 TV, 휴대폰, 컴퓨터 등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기기들은 한결같이 디지털화되었다. 디지털 기기들의 편리함 속에서 0과 1로 변환되기를 거부한 채 고유한 물질적 특성을 고수하려는 아날로그는 살아남지 못할 듯 싶었다. 그러나 디지털 천하 속에서도 아날로그는 건재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 대신 손끝의 촉감을 즐기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날로그는 '촉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체이다. 이에 비하면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불가촉(不可觸)'의 한계를 지닌다.



음원보다 음반, LP판의 부활

LP판은 음악을 듣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서 20세기 음반산업의 주인공으로 군림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판을 턴테이블에 걸고 바늘을 올려놓아야 하는 불편한 과정이 문제였을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걸림돌이었을까. LP판은 간편하고 깨끗한 음질의 CD에 밀려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디지털 음원의 등장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골동품 취급을 받던 LP가 옹케도 음반시장으로 회귀중이다. 아이돌까지 한정판 LP를 내놓았고 사라졌던 레코드숍이 등장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디지털로 음악을 들던 젊은이들이 LP의 음색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에 대한 반작용일까.

모든 디지털 기기가 그렇듯 MP3도 0과 1의 조합을 통해 음악을 재생한다. 그런데 0과 1의 조합만으로는 모든 음역의 디테일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나쁜 음악 보고서)의 저자 남우선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이즈(잡음)까

지도 다 잘라내고 실재음의 극히 일부만 기록한 디지털음은 깨끗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몸의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소리로 파악한다.”

MP3가 모든 음역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 화질 좋은 사진의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방송인 배철수가 ‘MP3는 쓰레기 음악과 같다’고 혹평을 했던 것도 MP3가 음악이라는 감성 정보를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임을 강조한 말이다. 심지어 아이팟으로 MP3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했던 스티브 잡스도 ‘집에서는 LP 음반으로 노래를 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카세트테이프에서 CD로, 다시 MP3로. 기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편리해진 만큼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적어졌고 모든 음악은 컷등을 흐르는 배경음의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LP판의 부활은 음악의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을까.

기분 좋은 불편함, 필름 카메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아날로그 사진이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필름 카메라가 중고로 거래되기도 하고, 카메라 수리점에는 부모님이 쓰던 옛날 필름카메라를 수리해 달라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형 수동 필름 카메라의 기능과 디자인을 본뜬 제품들도 인기이다. 최첨단 전자기기가 복고풍의 옷을 입은 채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날로그적 현상이다. 기세등등하게 등장해 필름 카메라를 시장에서 밀어냈던 디지털 카메라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밀렸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과정은 디지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필름을 사야하고 찍은 사진을 확인



쉽게 찍고 쉽게 얻는 사진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필름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감당해야 할 불안감마저 가슴 설레는 경험이라고 여긴다.

하려면 사진관에 인화를 맡기고 사나흘은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들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찾는 것일까.

첫째, 실재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은 실재가 아니라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돼 있는 엄청난 양의 사진파일에 불과하다. 반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직접 만질 수 있는 존재이다.

둘째, 설렘이다. 쉽게 찍고 쉽게 얻는 사진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필름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감당해야 할 불안감마저 가슴 설레는 경험이라고 여긴다.

셋째, 반작용이다. 완벽에 가까울 만큼 매끈한 디지털 사진에 대한 반감. 보정을 통해 누가 봐도 자기의 얼굴이 아닌 사진을 보며 ‘사진 예쁘게 나왔다’고 좋아하는 세대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지금 아날로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이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게임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던 보드게임 열풍이 불기 시작한 곳도 대학가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드게임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날로그 열풍, 편리한 삶에 대한 경고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LP판이나 필름카메라가 단순히 기성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날로그 기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새로운 놀이'로 부상했다는 대목이다. 젊은 층을 사로잡는 것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아날로그가 지닌 '새로움'이다.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도 필름카메라로 찍은 듯한 '아련한' 느낌을 살려주는 이른바 '구닥 캬'가 인기라고 한다. 기술에 밀려 '구닥다리'라 치부되던 것들이 젊은이들의 최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지금 아날로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이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게임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던 보드게임 열풍이 불기 시작한 곳도 대학가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드게임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드게임

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과 달리 직접 만나 열굴을 맞대고 즐기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적 요소를 내포한다.

물론, 아날로그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대세는 디지털이다. 디지털의 물결이 사람들의 일상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으니 아날로그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명한 것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도 아날로그는 여전히 건재하며 호시탐탐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편리함이 일상이 되면 삶은 다시 지루해질 테니 반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 데이비드 색스도 "아날로그의 인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며 아날로그의 반격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포스트 디지털은 다시, 아날로그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귀담아듣는 독자엽서



'Show me the 팀웍' 잘 봤습니다

계열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등 궁금했었는데 'Show me the 팀웍'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회기야애한 모습으로 촬영하는 것도 부러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팀도 출연해보고 싶네요!

이장원 사원(주)이수 경영지원팀



4차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요즘 화두는 역시 4차 산업인 것 같습니다. 신문, 뉴스, 인터넷 등 4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던 차였는데, 사보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네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자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사원(이수페타시스 외총1)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염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어떤 여행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내도 즐거워할 만한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름호에 실린 열기구, 카약 등 레포츠 여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신나는 여행 정보 많이 부탁 드립니다.

김영신 선임기정(이수페타시스 검사파트 AO)



희귀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수상식'에서 나온 희귀질환 극복의 날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여기고 항상 무심코 넘겼는데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조금이나마 공감 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김영관 대리 배우자 김주연 님(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꽃보다 봉어빵〉에 출연한 네 가족 중 가장 닳은꼴을 골라 엽서를 보내주세요. 제일 많은 엽서를 받은 가족에게는 영화예매권(4매)을 드립니다.

1. 조대형 차장 + 자녀 조성준



2. 조용민 차장 + 자녀 조명은

3. 김현중 차장 + 자녀 김지호



4. 배정호 과장 + 자녀 정지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년 여름호 엽서 당첨자

- (주)이수 경영지원팀 이장원 사원
- 이수화학 울산생산파트 우창훈 과장 배우자 김희성 님
- 이수페타시스 검사파트 AOI 김영신 선임기정
- 이수페타시스 외층1 김재현 사원
- 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김영관 대리 배우자 김주연 님
- 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박선우 대리

2017년 여름호 정답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1월 20일입니다. 문의 _ (주)이수 브랜드관리팀 (02)590-6895

이수화학의 사사(社史)로운 것을 찾습니다!

사진, 서류, 실물자료 등 이수화학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보내주신 史料는 소중히 사용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집기간 2017.04~2018.02

접수 및 문의 기획팀 원경호 대리 02-590-6664 / khw@isu.co.kr
기획팀 김태준 대리 02-590-6815 / taejoonkim@isu.co.kr

* 사료(史料)를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